

2/14(월) 스가랴 묵상 11

스가랴 6:9-15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여덟 개의 환상이 끝나고 주어진 첫번째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함께 만들라

오늘 본문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10-11절,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여러 사람들의 협력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다야를 제외하고는 성경 속에 딱 한 번만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여다야도 느헤미야서에 등장하지만 그가 같은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그저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자들로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요시아도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아버지인 스바냐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가 당대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자들은 요시아의 아버지 스바냐가 옛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한 제사장이자 성전 감독의 책임을 맡은 제사장이었다고 추정합니다(왕하 25:18; 렘 29:25, 29; 21:1; 37:3). 그리고 스바냐와 요시아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소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이스라엘 땅에 계속 남았던 자들로 추정합니다. 즉, 이들을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처럼 성전 재건의 임무는 포로 귀환자 공동체와 유다에 남아 있던 공동체가 서로 주 안에서 하나로 연합될 때에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전을 건축할 자

한편 오늘 본문에서 의문점은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 왜 스룹바벨이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2절은 그가 여호와와 그의 전을 건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싸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와 그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지만 스가랴가 본 이전 환상에서는 분명히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슥 4:9,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스룹바벨은 이전에 언급된 것처럼 그는 당연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히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명실상부한 유다의 육적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의 기쁨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슥 4:14, “이르되 이는 기쁨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둘째로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성전 재건이 완성되기 이전에 역사의 무대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스룹바벨의 개인적인 잘못이라기 보다는 유다인들로부터 그의 영향력이 점차 더 커지게 되면서 이에 부담감을 느낀 페르시아인들이 그를 페르시아로 소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전을 건축할 자로 스톱바벨이 아니라 '다른 싹(순)으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예고하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에서 스가랴서 6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15절, "면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 중에서 여호와와 전은 '면 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건축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바벨론의 1차 포로 귀환자들 뿐만 아니라 비 유대인들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슥 2:11상,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은 단지 스톱바벨이나 여호수아와 같은 한 사람의 지도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지도자들과 포로 귀환자들, 유대에 남았던 자들 그리고 비 유대인들도 함께 이 일에 참여해서 완공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신약의 교회와 같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면류관을 쓰신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부자나 빈자,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가 힘과 능력이 있는 한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것보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또 그 안에서 때로는 불협화음이 난다 할지라도 합주를 통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엡 2:21-22,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존귀하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누군가를 의존하기 보다는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갖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 건물도 크고 재정이 많고 또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되고 또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대한민국 땅을 위한 기도:**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바르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옵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EM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 4.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케냐 최인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